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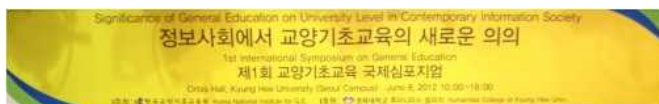


대교협 동정



교양기초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 '정보사회에서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의의' 주제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6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전국 대학 교양교육 담당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사회에서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의의>를 주제로 교양기초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태수 교수(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장)는 기조강연에서 "일제 강점기와 설익은 미국 대학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교양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닌 '전공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고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 활동을 포함해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도와주는 내용을 담은 '자유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양교육이 단순히 대학의 저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학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학생을 넘어서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로아노크 대학의 폴 한스테트(P. Hanstedt) 교수는 "미국 대학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의 자유교육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역별로 골고루 공부하게 하는 분배적 풍조에서 벗어나 지식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첫째, 현대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하고 파편화된 삶의 환경과 정보들이 그들에게 종합하고 통합하여 전체를 보도록 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둘째, 학생들이 대학에서 접하는 다양하고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것같은 정보들은 이들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가운데 지식에 대해 메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셋째, 실제의 직업 환경을 보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딪치는 일들은 한 영역에서만 일의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지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보다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을 통합지향적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 일본 도쿄대의 마사카즈 시마다(嶋田正和) 교수는 "도쿄대 학부과정의 경우 '전공선택은 나중에'(late specialization)

라는 모토를 견지하면서도, 전공 학과에서 차후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한 시사성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공 노출'은 일찍(early exposure)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보스턴 대학의 나탈리 맥나이트(N. McKnight) 교수는 미국 대학교육 관련 단체인 미국대학교육협회(AAC&U)의 조사를 인용하며, "고용주들은 교양지식과 응용지식이 융합된 형태의 교육을 요구하는데, 가령 80% 이상의 고용주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와 분석기술, 과거보다 더 광범위한 기술교육 등을 꼽았으며, 단지 20%만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양교육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학생, 부모, 관계기관, 주주, 기업가들과 함께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경찬 연세대 교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학교육위원장)는 "정보사회에서 한국의 대학이 '상아탑'에서 '사회'로, '지식'에서 '사람'으로, '국내'에서 '아시아'로 중심이동을 통해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은 정규강좌 대 캠퍼스생활, 문과 대 이과, 교양교육 대 전공교육 등의 이분법을 융복합 개념으로 바꾸는 역할을 통해 미래사회의 위기들을 감당할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교협은 "매년 선진 교양교육 해외사례를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대학생 고전독해 에세이 콘테스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제1회 대학생 고전독해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의 시상식을 6월 8일(금)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진행된 교양기초교육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가졌다.

□ <인문사회부문>에서는 플라톤의 『법률』을, <과학기술부문>에서는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고 5월 28일 당일 현장에서 제시된 논제에 대해 학생들이 자필로 작성한 에세이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한 결과, <인문사회 부문> 금상(상금 300만원)은 서울대 외교학과 김유정, 은상(상금 200만원)은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김희원, 동상(상금 100만원)은 연세대 신학과 김은진, 그리고 장려상(상금 50만원) 두 명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조현선과 서울대 법학과 서애리 학생이 선정되었다.

□ 한편 <과학기술 부문>의 금상은 연세대 교육학과 이동화 학생에게, 은상은 수상자가 없었고, 동상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수빈, 그리고 장려상은 한양대 물리학과 이나원 학생과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윤요섭 학생에게 돌아갔다.

□ 심사과정은 <인문사회부문>과 <과학기술부문> 각각 교양교육 전담교수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위원 각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0명을 1차로 선정하였고, 그 10명에 대해서 출제자(초청강연 교수)가 순위를 최종 평가(절대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012년 제4회 CEO특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7일(목) 세종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대표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과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현재 세상을 바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의가 자신의 꿈을 좇아 성공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 안랩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으로 매우 친숙한 이름인데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날 김 대표의 강연에는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리해 귀를 기울였다.

□ 김 대표는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번 강의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대표적인 IT회사로 손꼽히는 인텔에도 인류학자가 일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며 "기껏해

야 한두 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텔이 고용한 인류학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국가가 갖춘 문화의 차이를 아는 것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며 "첨단 IT업체인 인텔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사람과 문화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랩 또한 미국과 일본 시장 등에 진출했을 당시 철저한 현지조사와 이용자경험(UX) 등을 중요시해 성과를 내고 있다.

□ 김 대표는 "실패는 젊음의 소중한 자산이며 실패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다. 실제 그는 1996년 당시 벤처기업인 시큐어소프트를 설립하며 승승장구했으나,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정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사업을 하다 폭삭 망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부양할 가족들이 큰 부담이었다"며 "실패할 때의 고통은 엄청나기 때문에 젊을 때 많은 경험을 쌓고 패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를 하고 나면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며 "도전을 한 사람만이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IT 융합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생겼다"며 "세계라는 무대는 스펙이 필요 없으며 열정과 젊음을 갖고 도전하면 성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고졸자 후진학 지역·계열별 교육기회 대폭 확대

- 재직자 특별전형 우수대학 재정지원 -

□ 재직자 특별전형 계획이 우수한 대학 18개교 선정·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발표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수능시험 대신 재직경력·학업의지만으로 입학하는 정원의 특별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2항14호)
※ (현황) ('10학년도) 3교, ('11학년도) 7교, ('12학년도) 23교, ('13학년도) 40교 확대 예정
-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예산? 12억원

◦ 금번 선정대학은 전문대학 4교, 대학 14교 총 18교이며, 이들 대학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일·학업 병행 교육 기반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선정 대학 현황(18교)

- (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제주한라대, 창원문성대
- (대학)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건국대, 광주대,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중앙대, 한양대

◦ 이번 재정지원은 ‘선취업 후진학’ 핵심정책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계획(‘11.6)」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서, 재직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 학사운영 체제가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 재직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나아가 후진학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수요맞춤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 기초학업보완프로그램운영, 강사비 등

□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상업·공업·해양·가사계열의 다양한 학과가 개설된다. 특히, 한양대·경기과학기술대학 등 공학계열 교육역량이 뛰어난 대학이 합류하여 이공계열 학업경로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계열별 현황 : 공업 6교, 농업 2교, 상업 8교, 수산·해양 1교, 가사·실업 1교

둘째, 거점 국립대·주요사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 (거점 국립대) 10교 중 5교(경상대·경북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주요 사립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셋째, 대학이 자발적으로 장학금 지급 등 후진학 교육투자비용 확대

※ (장학금) 경북대('12학년도 ~, 1인 100만원), 충북대 전원 지급('13학년도 ~), 명지대·동덕여대·영남이공대·창원문성대·제주한라대·광주대 재학생 전원 30~50% 지급

※ 중앙대·국민대 해외 단기연수 및 산업 현장교육(국내·외)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풍당당 신고졸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진학 생태계가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51개교) 중 산업체 재직자 후진학 지원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후진학 선도대학(10교)」 지정하는 등 후진학 제도 채택여부 등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후진학 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 대학재정지원 사업 연계현황 >>

사업명	후진학 연계내용	지원금	지원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후진학 계획 우수대학 별도예산 지원	교당 2억원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 홍서대, 군산대, 순천대, 동명대, 금오공과대, 연세대(원주), 창원대
산업단지 캠퍼스조성	재직자 특별전형 등 후진학 계획 반영	10억원 내외	창원대, 배재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형” 유형선발	대학별 차등지원 (0.8억원~4.5억원)	(계속) 경기과학기술대, 공주대, 명지전문대, 영남이공대 (신규) 강남대, 전남과학대
사이버대학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사업	사이버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신설·개편 등 지원	평균 1.5억원 내외	영진사이버대학(정보통신학과), 고려사이버대학(전기전자공학과), 서울사이버대학(미디어관련초공학과, 대구사이버대학(전자정보통신공학과)

◦ 앞으로도 선취업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언제든지 직업능력개발·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후진학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12.5.31) '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대학은 대학 37교, 전문대학 8교 총 45교(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기준)로, '13학년도 정시모집계획이 완료되는 10월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후진학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를 수용해 후진학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7월 개통예정인 특성화고 포털사이트 (<http://www.hifive.go.kr>)에 탑재할 계획도 밝혔다.

2012년 좋은학교 박람회 대입상담관 운영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주관한 2012년 좋은학교 박람회 행사 중 대입상담관 운영에 참가하여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진로진학상담을 진행하였다.

□ 박람회는 지난해 일산 KINTEX에서 처음 개최하였으며, 학부모 및 참가자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 올해 영남권(5월 21일~23일), 호남권(6월4일~6일), 수도.강원.제주권(9월20일~22일)등 3개 권역별로 확대 개최된다.

□ 수도.강원.제주권 행사는 2012년 9월 20일(목)~22일(토)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며 영남권, 호남권과 마찬가지로 대입상담관을 통해 학부모와 고등학생에게 대학입학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대학 소식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4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012년 고교-대학 연계 전주·완주권역 고등학교장 입학사정관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날 워크숍에는 서거석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장, 입학본부장·입학부본부장, 전임입학사정관 등 30여명과 전주·완주권역 고등학교장 36명이 한데 모여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표 및 토론, 특강 등을 실시하고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거석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대는 연구와 산학협력에서의 탁월한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도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주·완주권역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박종민 입학본부장은 "우리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잠재력과 창의력, 열정 등을 전공과 잘 접목시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추수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입

학사정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미향 입학사정관의 '고교연계 프로그램 현황 설명'에 이은 질의·답변, 황호진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광자)는 8일(금)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내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서 고교 진로진학 지도방안 내실화 및 입학사정관전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슈가 진로진학협의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에서 서울여자대학교는 전국의 진로진학상담교사 4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여대 입학사정관과의 만남을 통해 고교 진로진학교육과정과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였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진로진학 지도 사례 발표와, 서울여대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여 대학과 고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서울여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입학사정관전형 면접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많은 관심끝었다.



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학장 이춘우)은 6월 7일 오전 11시 30분 수산과학대학장실에서 일본 미야자키대학교 농학부(학부장 노보루 무라카미)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 해양, 생물 등 학문 분야의 공동연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 인적교류 등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상호 학점 인정과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류를 위한 학술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은 미야자키대 농학부가 수산해양분야의 학문역량 강화를 위해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측에 학술교류 요청을 해 온 데 따른 것이다.

□ 이춘우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수산, 해양, 생물 등 학문분야의 역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양 대학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충청·호남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가 주관하며, 충청·호남권 80개 학교가 참여하는 2012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충청·호남권)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순천팔마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 좋은학교 박람회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수 학교의 교육성과를 해당 지역에 보다 확산시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편리하게 박람회 현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 첫 행사인 영남권 좋은학교 박람회는 지난 5월 경주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와 연계·개최되어,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물론 현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10년, 2011년과 달리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어 학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야외 행사라는 이점을 살려 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무대와 체험활동을 진행해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 이번 충청·호남권 박람회도 순천 팔마종합체육관에서 야외행사로 진행되며, 체험 및 공연이 보다 늘어나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충청·호남지역 대학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 안내되고,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홍보부스, 한국예술총연합회 진도지부에서 진행하는 체험활동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 또한, 여수 세계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장과 엑스포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 버스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한눈에 여수 세계엑스포와 좋은학교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7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9개 고등학교와 27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675,561명으로, 재학생은 593,886명이고 졸업생은 81,675명이다.

□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되는 2013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본 수능과 같게 출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13학년도 수능에 반영
-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3학년도 수능의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

□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에서 70% 수준으로 연계하여 출제한다.

□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동일하게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 26일(화)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 영역 675,561명, 수리영역 '가'형 211,329명, '나'형 458,009명, 외국어(영어)영역 674,819명, 사회탐구영역 365,408명, 과학탐구영역 253,972명, 직업탐구영역 56,020명이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74,122명이다.

※ 직업탐구영역 지원자는 '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17,048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졸취업문화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수험생 중 특별관리 대상자는 맹인 수험생 41명, 저시력 수험생 41명, 청각장애 수험생 161명으로 총 243명이다. 맹인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에 테이프를 제작한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저시력 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118%, 200%, 350%)를 제공하며,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1, 3교시의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